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해

제목 : 놀이터

오늘은 맑은반 친구인 이동준과 제일
큰 놀이터에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
재미있게 놀았다. 일단 우리가 한 놀
이로는 성지킴이, 스텝잡기 등 이었다.
그러면서 엄청 많이 놀다가 시간
이 굉장히 많이 흐른 줄도 모르고
신나게 놀고 있었다. 그 바람에 아
빠가 온 동네를 찾고 있었다. 내
가 아무데도 없어서 학교까지 갔
다 왔다고 했다. 길이 험갈려나보
다.